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19일(목)

장 소 제3회의장(245호)·정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요청안
2.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회 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성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승찬 위원님 환영하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보위가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보 분야를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청문회가 순조롭게 그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요청안

2.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회

(10시03분)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안보 위협을 삼각 파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군사 강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현대전 전력 역시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격화되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은 국제 안보 지형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연결 사회는 국방, 금융 등 국가 기반 인프라가 침해되면 곧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새로운 위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시에는 군인들이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킵니다. 평시에는 국정원을 축으로 안보기관들이 음지에서 분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국정원을 이끌어 가려는 후보자의 의지와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안보관을 국민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러 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것을 위원들이 여쭙어볼 테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야 또 정파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됴됨이와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는 이곳에서 공개회의로 진행하고 국가기밀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 이 회의장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함께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공직후보자 이종석

○위원장 신성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년 만에 다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정원장후보자로서 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4년 세종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한 이래 30여년간 북한, 남북관계, 북중관계,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안보협력 등을 주제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NSC 사무차장, 통일부장관 등에 봉직하며 한미동맹,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NSC 책임자로 일할 당시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지원하여 통상 파고 속에서 국익을 지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열망과 요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경쟁 등 안보·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지원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와 협상의 2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 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오랜 소신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 극대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어떠한 소임도 완수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더욱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핵심 대북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안보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산업기술 유출, 보이스피싱, 마약, 테러 등 국민 실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도 빈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세월 외교안보 분야에 있으면서 실사구시를 모토로 삼아 실제 사정을 따져 바른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

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안보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 수시로 안보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지도 편달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국민의 목소리로 새기면서 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 국정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의사진행발언, 야당 국민의힘의 이성권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권 위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 후보자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다수의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형태로 서면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후보자 방북 내역, 후보자의 소유 차량에 대한 과태료·벌금 체납 내역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접수 현황, 경범죄 내역, 입출국 현황 및 체류기간, 세금 체납 내역, 한마디로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내역에 대해서 모두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의 후보자 태도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부동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논란이 되고 나니까 청문회 이틀 혹은 하루 앞두고 어제 그제부터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출된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 방북 내역 제출 거부를 본 위원과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를 삼은 17일 당일 날에 후보자는 겨우 한 장짜리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후보자가 누락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명백한 거짓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자료제출 거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지원해 주는 통일부가 자료제출이 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 괜찮냐고 물으니까 후보자는 괜찮다 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심지어 제출한 자료마저 부실한 편입니다. 방북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언론에도 나왔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의 방북은 빼 버리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실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받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부실한 자료제출에 항의를 하니깐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어제 미제출한 자료 전부도 아닌 일부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뭉개려다가 논란이 일어나니까 찢끔찢끔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가 가까워져서야, 그것도 야당이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부실하고 또 전부도 아닌 일부만 제출하는 후보자의 모습은 누락이나 실수도 아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자랑해 온 대북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대북 이슈에 관한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이 하나같이 ‘관여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러한 소신을 물었는데……

1분만 좀……

○위원장 신성범 예, 그래요. 마무리하시고요.

○이성권 위원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만 후보자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이 제출 요청한 자료 중에서 거부된 자료를 11시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무시한 후보자의 공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간사께서……

여당 간사께서도 한 말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박선원 위원 예.

○위원장 신성범 박선원 민주당 간사님.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권 간사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긴, 장장 3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다른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길과 그리고 일정 기간, 특히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차장, 통일부장관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 그리고 국제 정세를 충실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리활동 하신 것도 없고 그 외에 외길을, 유일하게 학자와 일시적 공직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일생을 살아왔다 또 올곧은 길을 걸어왔다 하기 때문에 무슨 결렬, 그런 개인적인 정보로서 뭘 제공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야 될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성권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야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장후보자가 북한을 몇 번 방문했냐라고 하는 것은 보안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북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포함해서 방북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교통 관련 부분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정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인사청문회도 해 봤지만 그에 비해서는 충실히 잘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이성권 간사님의, 어떻게 속이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두 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 특별수행원, 남북 정상회담 때 그리고 특사 방북 때 대표단으로 가셨고 또 NSC 사무차장 또 정부의 북핵대응반장 했으니까 아마 북한에 몇 번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중요한 요소지요.

혹시나 후보자님께서 이성권 간사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을 일부 누락하고 지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있는 대로 다 보고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마 혹시나,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표현상 문제가 있어서 꼬투리 잡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일부 내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가급적 다 내라, 모든 것을’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하니 요구한 대로 11시까지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기 위원님, 우리 정보위원회 출신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03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NSC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하시면서 국정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있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후보자로 내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때에 비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한 20년 만에 보니까 어떻게 더 발전해 있던가요? 활력이 넘치던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좀 의기소침해 있던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사실은 그 당시 만난 뒤에, 제가 국정원하고 관련을 가진 다음에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흔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김병기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수준이 어떨까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축이 살아 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역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4차장 체제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3차장 2실장이지만 그러나 실제 차관급들입니다.

○**김병기 위원** 차관급이 네 분이지요. 왜 차관급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네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같은 데도 한 명도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복잡다기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그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그 업무를 다 정통할 수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근무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국정원만이 가진 특이한 환경을 알아보는 데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업무 중에서 국정원 직원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업무 능력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과 종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을 기르는 데는 후보자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했던 인력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도태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계급정년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국정원이 많이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보복의 악순환이지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처에는 인사라는 게 있다는 건 너무나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를 처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사를 왜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직원이면 정권에 상관없이 내보내면 되는 거지,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대과가 없는 직원들을 처리하려면 그거는 인사를 왜곡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왜곡이 국정원에서는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감찰실, 감사관실. 인사처가 간접적으로 하긴 하지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국정원 내부의 이런 견고하지 못한 점을 시스템적으로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글썄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데……

○**김병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적인 요소고요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원 내부의 감찰과 감사로는 이 시스템을 못 바꾼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저도 포함해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들으면 뼈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자체 개혁이나 혁신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

꾸지 않는 한 이거는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정원이 변하고 정말 국민의 정보기관이 되겠다는 건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외부의 감시의 취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계의 정보기관은 특별나게 우리나라보다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선진 정보기관은 이 점을 일찍이 간파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런 기능을 강화했지요.

외부에 의한 정보 감시체계 두 가지를 크게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가 정보감찰관제이지요. CIA 같은 데가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 의한, 외부에 의한 감찰·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장과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예 그 감찰관들을 국정원과 관계없는, 우리는 국정원이라고 비정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관계없는 기관에서 선발해서 감시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호주가 대표적이겠지요.

또 하나는 백악관,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비서실 직속으로 해서 정보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보공동체에 의한 행정부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정보위원회에 의한 감사겠지요.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원은 앞으로도 지금의 이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 보면서 저희 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 발언만 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신성범** 1분 더 주시고요.

○**김병기 위원** 비공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빠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이 공개석상에서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반복되는 보안 누설입니다, 보안 누설. 또 하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인사의 왜곡으로 인한 중요한…… 그러니까 능력 저하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NSC 책임자로 일할 당시에 국정원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원장님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는 제 기대인데요. 당시에 DJ 정부에서 구상한 사이버 능력 강화를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국정원을, 그나마 사이버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기관으로 그래도 버티게 한 단초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사이버 능력을 강화했듯이 다른 분야도 그런 시스템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감사합니다.

국정원 출신이시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깊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핵 문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경쟁 등 안보·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지원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표명을 했고, 특히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원의 정보조직의 기능을 보면 과연 어떤 정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업무 역할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3년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상당히 좀 극단적이지 않았는가, 극단적인 대러, 극단적인 대북, 극단적인 대중. 그로부터 오는 국익의 침해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됐던 이 상황 자체의 근거가, 국가정보원에서도 해당 관련한 대북 정보, 해외 정보, 대외교 정보 관련한 부분들을 제공해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과 이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과거 국정원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저 자신이 타산 지식을 삼기 위해서 한번 당연히 살펴볼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국정원이 국가의 어떤 통일·외교·안보 그다음에 통상 이 모든 방면에서 국가정책이 제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되는데 과연 과거 정부가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원장으로 지금 취임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의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모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인데 저희 국정원이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곳이 아니고 각 부처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성공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지원하고 또 한편 지금 글로벌 통상 위기가 워낙 우리한테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 통상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질의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제로 2022년,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오고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관계 자체가 과거에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어졌던 것이 제가 보기에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 판을 이끌어 왔던 상황 자체가 2022년 전후로 해서 깨진 것 같다, 그러면서 WTO 체제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 등 자유무역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깨져서 다시 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과 같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등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관련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그에 따르는 국익을 어떻게 수행하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익과 생존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역량 정보 강화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도 보면 국가정보원은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련한 사안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한다,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다 이게 국가정보원법에 있는 임무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즉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관련한 기소와 재판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2024년 3월에서 4월경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모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진행됐고 절차적 과정들이 진행됐던 과정을 국가정보원은 전혀, 인지한 건지 인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비화폰 사용 내역 관련해서 대통령과 홍장원 1차장 간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실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조태용 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비화폰 사용 내역이 삭제된 경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화폰의 지급 관련한 규칙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정보를 수행하거나 장차관이거나…… 비화폰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던 예가 수하나 여러 가지 과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즉 전직 군인 노상원 사령관에 대한 비화폰 지급, 김건희 배우자에 관한 비화폰 지급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정원의 마지막 답변을 들어 보면 ‘부적합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화폰과 보안폰에 관한 운용지침들을 조금 더 정비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인인 노상원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비화폰 지급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제도를 정확히 정비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지요, 두 번째 세 번째.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내란·외환에 대한 정보수집 이것이 국정원법에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적으로 저도 이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대답은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부대 앞 정문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실제 국정원이 내란·외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화폰 기록 삭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보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정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영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10년 또는 20년 가까이 됐네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20년 됐습니다.

○**권영세 위원** 통일부장관 계실 때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같이 마주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이든지 계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텐데 아까 그 전에 김병기 위원께서 국정원이 정권교체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흐름을 타서 정치화되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검이 임명돼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특검 쪽에다가 전적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 수사에 협조하는 것 그게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다만 원은 저희 내부의 어떤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국정원이, 지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정권교체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공직사회가 정권교체에 나름대로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교체 때마다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이 흔들려서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피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보기관은 더욱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97년도까지 국정원에 있다가—그 당시는 안기부지요—그 뒤에 DJ 정부로 넘어가면서 국정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이종석 후보자님을 자주파 6인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자주파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국민들께 좀 편하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주를 지향하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권영세 위원** 그 자주의 의미가 뭘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가 나름대로 보다 더 주권 국가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인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그것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점에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저는 그냥 실익을 따라왔는데 그렇지만 박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주파라고 불릴 만한 행동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20년 전에도 한쪽에서는, 이른바 보수적인 데서는 자주파라고 저를 비난했고 진보적인 데서는 동맹파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익을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권영세 위원** 진보 쪽에서도 동맹파라는 오해도, 본인은 지금 오해처럼 얘기를 하시는 데,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통일부장관 시절에 미국대사의 면담 요청을 한 4개월 동안 미룬 적이,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없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아니고 NSC 차장 때 미대사를 제가 처음에는 자주 안 만났는데 그 이유는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이수혁 차관보였는데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뜸하게 만났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 뒤로. 이것은 외교부의 요청이었습니니다, 사실은.

○**권영세 위원** 이해합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외교는 나가서 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할 필요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교관이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질서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 다 대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절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만나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파 얘기 관련해 가지고 또 박지원 위원님이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찐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간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NSC 차장일 때 위성락 실장님이 그 당시에 NSC 사무처의 정책조정관으로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본인은 본인이 자주파라는 것은 그냥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아주 당연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 문제만 보더라도, 국정원이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북한이 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고 또 중국도 미중 간의 경쟁 과정에서 북한한테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대사를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게 사드 배치 이후에 문재인 정부 내내 그다음에 그 이후 정부에서도 거의 접촉이 끊어질 정도로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저쪽은 러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혼자 자주적으로 이 게……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과 연결된 북한을 상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당연히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세계는 어쨌든 간에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저희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저희들이 한미 협력이 있고 주변국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고 또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권영세 위원** 예, 나머지는 오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현 위원 순서에 앞서서 방금 도착하신 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의 인사말씀 짧게 듣고 이어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1야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서 정보위원으로 보임된 송언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 간사님 모시고 정보위 활동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던 우리 박지원 선배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기현 위원** 경기도 일산 고양시병 이기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34년 전에 학생과 제자로 만났는데 이렇게 또 34년 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참 어려운 상황에 출범을 했는데, 특히 외교·안보 관련돼서 특히 북미 관계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한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였고 학생일 시절에는 안기부였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으로 바뀌는 이런 이름의 변화에서도 보여지듯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항상 국정 개혁의 핵심 과제는 정치적 중립, 정치 개입의 불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정치적 격변기에 국정원은 항상 개입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아 보고자 전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려운 국정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관여도 못 하게 했고 대공수사권의 경찰로의 이관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에서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아닌 1차장이었던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방첩사령관이 전화할 텐데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대공수사권을 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적극 협조해라’라고 하고 정치인들의 체포·구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지금 보도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내란특검에 의해서 다시 조사되고 사법 조치가 있고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당시 조태용 원장은 이런 사건을 보고도 묵인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그러면 이건 묵인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내란을 방조한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원에서는 그냥 살펴보는 수준이 아니라 원이 정말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어쨌든 내란특검이 지금 또 가동할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란특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은 원대로 하여튼 저희가 정치적인 중립 기관으로서 새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살펴보는 조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공수사권 관련해서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더 이상 대공수사를 벌미로 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옛날의 뼈아픈 과거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겠다라는 의지에서 4년 반 전에 이미 대공수사권 이관이 법으로 결정이 됐었고 그것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반 전에 이미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의 통화에서 나왔듯이 대공수사권을 끊임없이 국정원이 갖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해서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원장님 청문 준비팀에게 보내봤더니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원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단히 두리뭉실하지만 누가 봐도 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제 저는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공수사권이 왜 경찰로 넘어왔습니까? 수사기관인 경찰로 넘어간 것이고요,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은 명확한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 새로 출발했는데 이재명 정부 내에서 대공수사권이 다시 국

정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법을 개정할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정말로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짧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대공수사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고요. 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를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장을 또 밝히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아까…… 뒤에 거기 적은 것은 그것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비공개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원장님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정말로 공안정국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만한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특히 국정원 사건에 개입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해 사건, 서해 사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동해 사건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체포했다가 다시 북한에 넘겨 보냈던 사건이고 서해 사건은 아시다시피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던 그런 사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정보원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역대 해외 어느 정보기관에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역대 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원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만—그다음에 서훈 원장님을 국정원이 고발을 했어요,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제 진행했던 그 당시 김규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이 사건, 고발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를 했대라고 김규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NSC 상임위하고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부처 조정을 실행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김태효 당시 1차장이 관여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민주당 TF의 조사 결과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국방부 직원들의 증언에서도 이 문제들이 일부 거론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정말로 경위와 조사, 진상에 대해서 국정원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은 국정원 내부 조직과 관련돼 있고 또한 전직 원장님들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서 저 역시 그것은 상당히 깊이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이미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직까지 뭐…… 저는 사실은 제도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또 저 같은 국정원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얼마만큼이나 강하게 버틸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의 철학과 구상을 받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좋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이 자기의 경쟁 라이벌, 정치 지도자나 이런 데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어떤 조치를 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외압이고 정치적 개입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들을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저 자신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단절시킴으로써 그 전통을 이어 가게 하겠다, 다만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 1분만 더 추가로……

○위원장 신성범 예, 1분 더 드리시고요.

○이기현 위원 대통령의 의지…… 예전에도 원장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보 사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국정원장이 될 내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정치 개입의 문제가 정보 사용권자인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국정원은 다시 돌아왔고 다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다시는 그런 합법적인 틀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원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서, 물론 국정원법이 있습니다만 이 법이 법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 원장님이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제도화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순서입니다.

○부승찬 위원 후보자님,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돼서 출범된 것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파견되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어제 국정원에 연락이 왔고 그 쪽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원하고 연락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다시 파견과 그다음에 보고를 다 지시해 났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출범 전에 그래도 국정원 분야도 개혁 분야가 있을 것이고 제도개선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리젝트를 당했어요. 전문위원을, 파견 전문위원을 추천했다가 두 번이나 리젝트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것은 저는 전혀 보고받지 못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그래서 국정원이 아예 빠져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점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 이름 딴 와인 있는 것 아십니까, 트럼프 와인? 들어 보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못 들어 봤습니다.

○부승찬 위원 거기 그러면 오너가 누구일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보 분석의 중요성이잖아요.

트럼프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래도 술 회사는 운영할 수 있겠지요.

○부승찬 위원 사업적으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개인 성향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국가행위를 분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정보가 요즘은 정말 복잡해졌다, 그렇지요? 트럼프가 트럼프 와이너리를 매입하면서 하버드 부동산 사례 연구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와인 하나를 가지고 정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국정원의 역할 그다음에 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의 정치화’라는 용어를 아시지요, 정보의 정치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아무래도 학자를 오래하셨으니까.

결국은 정보의 정치화는 리더십의 의도, 인식에 맞춰서 정보가 왜곡돼서 생산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다 보면 국정원의 주요 임무는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전쟁 예방도 정말 크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박근혜 때, 우리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예를 들어서 북한 붕괴론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 이런 것들 해서 대통령이 이런 위딩을 던져 놓으니까 국정원에서 그것에 맞는 정보를 분석하다 보니까 남북관계도 어그러지고 그런 사례들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서 정보가 생산된다면 결국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실 그런 자세는 되어 있으신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연구하면서 또 현업에 있으면서 가졌던 모토가 하나 있다면 실사구시, 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까만 제가 실사구시를 모토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금도 모시고 있고 또 후보 시절 전부터 알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대통령께서는 실사구시적인 정신, 실용 이런 것에, 이런 것을 갖다

삶의 기초로 해서 특히 정치에도 나름대로 적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승찬 위원 지금 역대 정부를 보면 대부분이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 탄핵 때도 그렇고 국정원이 받쳐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북한 평양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 볼게요.

분명 국정원에서 보고서가 작성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거는 그렇게 예단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질의답변서에 보니까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와 있던데, 평양 무인기와 관련돼서. 아니,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이 되고 그리고 날짜가 공개가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국방부 훈령을 위반하고 군형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형법을 위반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분석보고서가 없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국정원이 허술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비공개회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해 주실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하여튼 비공개회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일단 비공개회의에서 그 답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모든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국정원은 그때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평양방송에서도,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다 나왔고 그때 과연 국정원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리더에게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아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국내 정치 문제 개입과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정원에 국익정보국이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국은 아니고 단 수준에서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단 수준에서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그게 불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신원조사센터 있지요? 원래 신원조사센터가 문재인 정부에도 있었어요? 법무부랑 인사 검증을 하는데 인사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없었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된 게 국익정보단하고 신원조사센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 점에 대해서도 비공개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제 질의가 다 비공개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부승찬 위원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안보라는 것이,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복합적이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과거에는 국가안보가 곧 군사정보 이 정도로 해서 등치되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경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래스카 LNG 가스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한일대륙붕개발협정 이제 3년 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혹시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시킬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지금 공급방법에 의해서 국정원이 경제안보에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단이 있는데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국정원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조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송언석 위원 먼저 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은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본인은 부인하시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제가 67년을 살아왔습니다.

○송언석 위원 제가 짧게 팩트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주간경향 인터뷰에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 4000억 현물을 지원했다. 그 지원이 북한의 호전성을 줄이고 남북 간 대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 거 사실인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 지원을 자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송언석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차량을 몰면서 딱지 몇 번 뺐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번에 알았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한 번 한 번 횡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그런 얘기……

○송언석 위원 제가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하고 나왔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걸리면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런 게 걸리면 인사상에 치명적으로 흠결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지난번에도, 또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 수십 차례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하고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 자세는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이 미달이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죄송합니다.

저는 횡수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다는 뜻이지 제가 그런 과태료를 물었다는 걸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 실수도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가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건 실수가 아니지요. 원래 성향이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령 자체를 무시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켜 가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2010년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북 현물 지원을 함으로써 남북 간 대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했지요. 북한 핵무기 보유를 2005년에 선언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해 놓고는 그다음에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실시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저희가……

○송언석 위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남북 관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자체가 당연히 효과가 있었지요. 다만 그렇게 안 좋은 사건만 즉 나열해서 말씀하시니까……

○송언석 위원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쭙볼게요.

2016년 사드가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2019년 서울 송파동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지소미아는 처음부터 잘못 맺은 것이다. 파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사실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사실입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볼 때 국정원장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0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기억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도 기억 못 하는 분이 어떻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15년 전의 것을 갖다가 위원님이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이렇게?

○송언석 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정보를 총괄하는 원장후보자로서 그런 것도 기억 못 한다고 그러면 자격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제가 한 말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언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게 곧 그 개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볼 때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예, 짧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친북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과거 제가 한 발언에서 저를, 물론 비교는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제 소임에 맞춰서 행동을 할 겁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이미 합의가 됐고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이미 그것이 합의가 돼 가지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송언석 위원**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쭙볼게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양반이 대법원에서 2025년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 추징금 3억 2595만 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그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당연히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이화영 부지사가 송금을 한 사실은 몰랐고 송금 때문에 그렇게 판결된 것이 아니라 이와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형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화영 부지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하셨어요. 2018년도에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도 같이 하셨고 2018년도 10월 4일 평화방북단도 같이 하셨고 ‘평화 레디(Ready), 경기 액션(Action)’ 토크쇼도 하셨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

회 회의도 두 번 세 번 하셨고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도 같이 하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이었거든요.

○송언석 위원 잘 아시는 분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때 이화영 부지사도 같은 공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일로써.

○송언석 위원 아니, 평화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른 활동을 같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요, 그 이전에는 같이 활동한 것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 잘 모르는 분이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요. 알지만 같이 활동을, 서로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언석 위원 조금만 더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신성범 예, 1분 더 주시고.

○송언석 위원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한 것 있잖아요. 불법 송금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당연히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을까요, 그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화영 부지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그때 지사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그때 충북 인사들이 평화위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극단 큰곰자리 대표, 통일맞이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런 분들은 다 ‘평택 미군기지가 전쟁 침략 기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들을 충북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도 위원으로 선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했다 이거지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예, 그래요.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김 위원님, 꼭 하셔야……

○김영진 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성범 예, 김영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저는 국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자질과 능력에 관한 검증 그다음에 과거 발언에 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은 유효한데 10년 전 20년 전 발언을 물어보고 기억하냐 안 하냐 이렇게, 초등학교 1 플러스 1은 2냐, 이거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을 쓰면서 좀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장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 연락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해서 비판하고 검증을 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그 범위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발언에 관해서는 저는 송언석 대표께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국정원장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김영진 위원 발언 중이에요, 지금!

○위원장 신성범 아니,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발언 중이라고요!

○송언석 위원 왜 반말하고 그래!

○김영진 위원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송언석 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 달라고……

○김영진 위원 발언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발언 끝나고 하시라고.

○위원장 신성범 좀 차분하게 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좀 지켜보세요.

○위원장 신성범 예. 목소리 낮추시고요, 서로.

○송언석 위원 말씀하세요, 빨리.

○김영진 위원 그래요.

저는 이걸 사과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보위 관련한 운영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후보자를 그렇게 폄하하고, ‘대남 연락소장’이 도대체 수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민주주의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원칙 이것 자체가 그 정도로 허술한 나라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범 예.

좀 차분하게 하시고 목소리를 좀,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으니깐.

혹여라도 송언석 위원님, 너무 또 대응……

○송언석 위원 이것은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신성범 예, 그래요. 짧게 해 주시고 다들 좀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평소에 기재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우국충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국가정보원을 이끌 수장님의 기본적인 인지 체계와 인식, 사고 방식의 프레임이 어떤 건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게 현재의 정보원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든 과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이 사실상 북한의 대남 연락기관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얘기했지 정보원장이 언제 대남 연락사무소장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국가정보원장이 특히나 그것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장후보자 인식을 제가 여쭙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조금 더 명확하게 명백하게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박선원 간사님 무슨……

○박선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신성범 알겠는데 이제 진행합시다. 그만하시고 제가……

○박선원 위원 아니요, 이게 중계되고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위원장 신성범 아니, 사실관계 하면 더 일이 커질 텐데……

○박선원 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1분 딱 하시고 정리합시다. 너무 좀……

○박선원 위원 1분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1분 주세요, 1분.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송언석 원내대표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간사 박선원입니다.

○송언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선원 위원 당연히 청문회니까 중요한 질의 하시는 것은 저보다 훨씬 다선 의원이시고 하시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사실관계는 아니잖아요. 왜곡시킬 수 있거나 오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화영 사건 관련해서 송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송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필리핀에서 이호남이가 와 가지고 쌍방울에서 돈 줬다라고 하는데 이호남이 왔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저는 국정원장께 묻고 싶은데 거기 필리핀에 우리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호남이가 안 왔다는데 왜 거짓 증언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없는 사실을 유포하십니까?

○위원장 신성범 박 간사님,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판결문 갖고 와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제 직권으로.

이어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수십년 동안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중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실용과 실리를 통해서 국익을 챙겨 왔던 거 아닌가요? 돈으로 정상회담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힘자랑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남북관계,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요 누구랑 논쟁을 벌여도 절대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국정원에 대한 평가, 후보자께서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해야 되는 마당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국정원 직원들 하나하나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에 기초해서 근무하면 나는 평생 이 직장에서 영예롭게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번 불법 내란이 실패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국정원이 개입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아울러 제도도 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도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 내란을 막아 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PPT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난 3년의 국정원 흑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미국의 IRA법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각 부처에 공유·전달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연휴가 있어서 제때 전달을 못 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구요.

다음 PPT 봐 주시면 중국에 대규모 탈북민들이 있었는데 이게 강제 북송될 거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이영환 탈북단체 대표가 이틀 전에 알려 줬다라고 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정보위에 나와서 전혀 이런 사실, 구체화된 첩보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국정원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구요.

다음 PPT 봐 주시지요.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엑스포 유치전 관련해서 국정원은 해외정보망을 총가동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대한민국이 29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과연 국정

원의 해외정보망이 제대로 살아 있었는지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다음 PPT 봐 주시면, 압권입니다. 정보사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해서 우리 정보역량의 상당수가—구체적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밀유출, 보안사고가 2년 넘도록 진행되도록 국정원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원장후보자께서 이런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윤건영 위원 마지막 PPT입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기술유출 및 보안 문제로 사전 경고받은 바 없다라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대표적인 사례 국정원의 흑역사를 보여 드렸는데요. 이게 지난 3년 국정원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놓치고 국정원이 가져야 될 국가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사명을 놓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현 원장이 전임 국정원장 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런 조직에 지금 후보자가 기관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 드는데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전임 원장님들, 진보 보수 떠나서 꼭 다 만나 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하여튼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불법 내란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조해서 각 부처로 보내고 있는 비화폰 관련해서, 국정원장과 경호처장의 통화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왜? 비화폰의 기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내의 관련자들인데 그자들은 그런 지시나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의 주요한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인멸하도록 조언을 하고 방조하거나, 최소한 방조 또는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저도 후보적으로 하여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위원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처벌 문제는 후보자께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흑역사들을 철저하게 기록해야지만 다시는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윤건영 위원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국정원이 이렇게 지난 3년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인사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국정원 1급 27명 전원 대기발령 내렸습니다.

국정원 1급이 27명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국가 보안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버젓이 공개하면서까지 1급 전원을 대기발령 내렸습니다.

국정원 역사 속에서, 중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없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진보 보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PPT를 보시면 2급·3급 100명 단위로 대기발령 내고 교체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쭉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예, 그러시지요.

○윤건영 위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후보자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위원 정권이 바뀌면 신임 원장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는 해야 됩니다. 인사 수요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를 통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될 국정원을 뒤흔들어 놔 버린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1급들 27명을 한 번에 대기발령시키면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 일이 버젓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지난 3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앞서 보여 드렸던 그런 흑역사가 차곡차곡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지와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렇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인사 그다음에 조직 문제인데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여튼 국정원이 쇄신을 해 나가지만 쇄신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직원들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내는 국정원을 만들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군살을…… 또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범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순서입니다.

○박지원 위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 하면서 1급으로 임명한 27명을 대기발령한 게 아니라 전부 해직했습니다.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1급 공무원은 언제나 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급, 3급 200여 명을 대기발령하고 지금까지 교육 보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김규현 국정원장이 김

모 농간으로 인사 파탄이 난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또 국정원 1급 다 몰아내고 한 200명 대기발령해서 교육 보내고 오지로 보내고 할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국정원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주 질이 좋은 퀄리티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나쁜 짓 했다고 이재명 정권 이종석 원장이 만약 부임하면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 가서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심지어 오늘 아침 도하 각 언론에서도 높이 평가했는데 원장후보자로서 이번 G7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볼 때는 가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시다, 열흘도 안 됐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서 그 정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일찍 귀국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지만 외교 퍼포먼스나 또 외교적인 나름대로의 친교 행사 그리고 한번 만남으로써 다음에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아, 이제는 대한민국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느꼈고 또 그렇게 느꼈다는 걸 갖다가 여론이,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이 출발하는구나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다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영부인도 녹의황상, 우리 한복 패션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명품점 쇼핑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받았어요.

이런 외교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후보자로서 이번 주에 예정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희는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참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서 보고를 드릴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일부에서 나토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해서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EU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다자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한 그리고 6개월 만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시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간첩법 개정, 일부 보수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간첩법을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내놨다…… 박지원도 저도 내놨어요.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간첩법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익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탐지하고 있는 적대적 탐지를 전부 다 나름대로 죄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보수언론이나 특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간첩법을 반대한다, 제가 수십 번 박지원도 개정안을 내놔다 하는데도 그런 마타도어를 했어요.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간첩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전임 원장님이 하여튼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주장을 받아서 원도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현재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몇 년 전,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하는 책자 보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박지원 위원** 거기에서 데이비드 생어는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 러시아, 중국보다도 훨씬 기술이 좋은 게 우리나라 국정원, CIA, 모사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건 그냥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범상 국정원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SK……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신성범** 예. 1분 더……

○**박지원 위원** 많은 해킹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조사를 충분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사이버만은 해킹 방지를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주장했는데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위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해서 살펴보고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박지원 위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민주당은 친북이다, 친중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민주당도 똑같은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법도 사이버법도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말씀만 더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북한에 드론을 보내 가지고 문제가 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조사해서 정보위에 보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쪽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국정원은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관여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성범 오후 회의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지역구의 유영하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감사합니다.

○柳榮夏 위원 다만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적격자냐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우려는 다름이 아닌, 후보자가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강연 또 언론 기고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일단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학자의 소신보다는 국정원장의 소명이 저는 더 앞선다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적은 북한이다 이런 의미로 주적을 사용했습니다, 주적이라는 용어를.

제가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답을 한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 의미에서 주적이라는 군이 쓴 용어를 원장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주적 문제에 대해서는……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제가 다 받아 봤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어려움이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좋습니다.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첨단에 서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위원님, 제가 잠깐 하나……

○柳榮夏 위원 아니요,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고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후보자께서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柳榮夏 위원 이때 정통성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에 있다

는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 대중의 정통성은 김일성에게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게 후보자께서 젊었을 때 소장학자로서의 얘기입니다. 아마 후보자가 보시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또 볼까요?

다음 PPT 보면 ‘김일성은 최초로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선언하고 주체 확립의 기치를 내건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래서 김일성은 북한 대중으로부터, 인민으로부터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PPT.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일반 민중에게 공산당의 영웅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되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민중은 북한의 민중을 말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민중까지 포함되는 민중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위원님, 저건 아마 제가 1937년도 그 당시의 동아일보……

○柳榮夏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37년 일제 때 얘기를 갖고 오신 겁니다, 저 얘기는.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柳榮夏 위원 그때 당시는 일제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하고 그때 얘기입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를 좀 보지요.

김정은 PPT로 넘겨 주세요.

‘북한 주민 입장에서 김정은 정권은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기의 정통성은 아까 말한 대로,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대로 김일성이 북한 대중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통성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혈통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지금 저 정통성이 혈통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일성이 북한 대중으로부터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손자인 김정은도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김정은이 북한 사회에서 통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柳榮夏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독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독재자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후에 질문드리고 북핵 문제 조금 짚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좀 걱정되는 게 혹시 국정원장이 되시면 통일부랑 부딪칠 수 있다, 아니면 통일부 그룹을 세계 잡아서 통일부 역할과 충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적절하게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정책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사실적으로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柳榮夏 위원 좋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도 의미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북은 지금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깨졌지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정책적으로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사실적으로는 깨진 것 맞지 않습니까? 말을 그렇게 자꾸 험란하게 하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지요, 정책과 현실 사이에.....

○柳榮夏 위원 현실이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柳榮夏 위원 후보자님,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얼마 전 보도에 보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보도 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봤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보면 북한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정입니다마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완성을 시킨 다음

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로 선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만약에 미국이 자기 본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에 핵무기로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 문제는 한미 동맹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미 동맹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미국이 자기 자국민의 손해를,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수백만의 인명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에 대해서 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범 드리세요.

○柳榮夏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번 언론에 브리핑하신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북핵을 포기시키려면 한미 훈련 중단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PPT를 띄워 드릴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그 시기를…… 그러니까 시기와 조건 없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柳榮夏 위원 그것 띄워 보세요, PPT를.

이게 2021년 6월 15일입니다.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좌담회에서 ‘북핵을 포기시키려면 한미 훈련 중단 같은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한미 훈련 중단이 되면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다 폐기한다고 장담하십니까? 지금 북핵 포기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도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에 개발된 무기도 폐기되는 게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한미 훈련이 중단되면 지금 북이 갖고 있는, 김정은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폐기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柳榮夏 위원 답변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북한 핵 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값비싼 대가라도 치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북한이 만약에 포기를 안 한다면 우리가 우리 조건을 그걸 갖다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서 군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이 있어야 주적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위협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적 표현을 요즘은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주적 관련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오후에 계속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선원 간사 위원님 순서입니다.

○박선원 위원 이명영 교수님으로부터 박사 학위 받으셨지요, 후보자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박사 학위는 아니고 학사 때 받았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명영 교수는 대한민국 김일성 연구 제1세대이며 가장 보수적인 학자이고, 그 이명영 교수로부터 사사받은 건 사실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의 대북관은 저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나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외재적 접근’이라는 말 쓰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모든 연구는 국가에 대한 연구, 지역 연구는 다 내재적 연구이고 그것을 이명영 교수가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권이 ‘즉강끝’을 주장하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저는 악마와 천사의 얼굴을 같이 갖고 있는 야누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CIA 부장이 김정은을 만나러 갔었지요. 그때 김정은이 CIA 부장 폼페이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내 앞에 왔군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폼페이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통전부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남공작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고 우리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북한에 대해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적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첩보와 정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폼페이오가 맡았던 임무 마찬가지고.

윌리엄 번스 CIA 부장이 카타르로 협상하러 다닙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를 위해서 직접 뛰어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정보기관의 장은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하는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못 하는 가장 최일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협상도 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2021년 6·15 행사에서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돈도 많이 들고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면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학자가 지금의 교착된 남북 대화를 돌파해 내기 위해서 팀스피리트, 과거 노태우 때 중단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문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2월, 그러니까 전임 조태용 원장이지요. 12월 3일 날 어떤 식으로든 내란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부서의 국장이 정보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또 김태호가 주도하는 현안대응팀에 국정원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방첩사·정보사 요원도 나와 있습니다. 현안대응팀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정조사특위에 나와서는 기획 업무를 한다라고 방첩사 요원이 말한 바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태용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거기에 내란죄, 외환죄, 균형법상의 반란죄, 이런 것은 국정원의 업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조직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제6조(조직)에 대한 조항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작년 12월, 1월, 2월 때 1·2·3·4급, 그 이후 5·6급까지 전부 다 새로 인사조치를 했고 그 인사조치를 하면서 ‘챙겨 줄 사람 다 챙겨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지원 전 원장님과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보복성 인사조치는 없어야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념의 과잉, 국정원의 정치화에 앞장섰고 내란 은폐용으로 저질러진 최근의 1·2·3·4급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가 있어야 된다, 이전 김규현·조태용 원장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교육 보내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도 보낼 사람은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원에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 잘 명심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2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4조(직무) 다항에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에 대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대전북 임무가 직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대응조치라고 하는 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막강한 역할 수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현·조태용 시절의 국가정보원은 외교부 북미국으로 전락했고 그 이외에 우리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았으며 내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무유기를 했다.

최근에 감찰도 필요하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란 관련해서 감찰 계획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살펴보고 지금 나름대로 이것저것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1분만 저도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범 예.

○박선원 위원 대공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정보조사국으로 대공수사국이 수사권은 없지만 그 수사의 최종적인 단계, 인신구속이라든지 영장청구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과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모든 임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공수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제외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대공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역할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게 이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박지원 원장님하고 제가 기조실장 할 때 이 법을 사실상 전부개정 하다시피 하면서,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왜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체포와 공소유지는 경찰과 협조를 하되 그 전까지 모든 임무는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응조치 있고, 우리 법에 총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박선원 위원 대응조치, 총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대공 업무, 대전북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한말씀만 드리면 대공수사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사권이 됐는데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게 너무 업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고 또한 현업에 있는 저희 원 직원들이 볼 때는 이 조사 가지고는 도저히, 사실은 여러 가지 장치는 되어 있지만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시행령에서라도 어떤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간사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구갑 이성권입니다.

후보자님, 엄청 오랜만에 뵙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성권 위원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국회의원일 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장관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하고 20년 만에 이제 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

씀을 드린다.

그런데 통일부장관하고 국정원장은 역할과 기능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년간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는 똑같지만 통일부와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은 다릅니다. 특히 국정원은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또 체제적 대결 속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입수라든지 수집이나 그리고 또 간첩을 잡는다든지 안보 문제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관, 안보관 또 주변국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관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입장만 좀 묻고 오후에 비공개 질의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동일한 내용을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관련된 겁니다. 이미 서면질의나 또 박지원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한번 PPT 넘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이라든지 국가기밀을 촬영한 사례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2건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이나 시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을 못 받지요, 간첩법에 적용을 시키는 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간첩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적인 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할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동의합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국회에서 일부 좀 반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국회 내에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의 1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5명 국회의원들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리를 해서 완전한 통일된 안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갑작스럽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단 스톱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되시면 정부가 좀 주도를 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바로 간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유명하 위원님이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후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개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열릴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는데 또 김정은 입장이 당장 빨리 열려고, 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저희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성권 위원 만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할 때 미국의 국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배치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실용적인 국익 외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의 국익과 배치될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국익과 배치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은 국익과 일치되거나 또는 국익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일치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인 딜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 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뭐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일단 제재 문제에 대해, 제재하고 영변 핵시설 바꾸는 것이 안 됐습니다.

○이성권 위원 결국은 핵 문제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스포딜이나 빅딜이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을 포기시키고 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많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저는 국정원장이 해야 할 일은 각 부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판단해서 만든 정책들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가 나와서 입장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밝히는 것은……

○이성권 위원 그러면 아직은 입장이 정리 안 됐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지금 제가 첫 청문회이지 않습니까?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정원장후보자로서, 방금 미국의 국익과 관련되어

서 만일에 적극적으로 북한과 딜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국익에 손상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검토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율을 하겠습시다라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권 위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안미경중’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그렇게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단어지만 지금은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경제적으로 서로 나름대로 밀접한 교류가 있으면 일정하게 안보적 이해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 너무나 확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안미경중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어떤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미국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워낙 지금 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에서, 즉 중국 봉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쨌든 간에 중국과 가까워지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소식통으로 안미경중에 대한 견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성권 위원 1분만 조금 더 주시지요.

○위원장 신성범 예.

○이성권 위원 자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과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려고 할 때 중국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논의 있는데 이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3년도 보면 30년 만에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국 수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으로 국제경제나 통상에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AI와 같은 첨단 기술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일에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경제에도 손상이 오고 안보도 손상이 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우리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 풀 저 풀 다 뜯어 먹고살아야 되지 저희가 한쪽 풀만 뜯어 먹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그건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안미경중이라는 나름대로 경직된 인식이 아니고 안미경미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범 저도 위원장이자 또 청문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분 주세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자주파와 동맹과 구분하는 것 잘 알고 계실 테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자주파로 비난받고 진보 진영에서는 동맹파로 비난받았으나 국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사실 확인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NSC 사무차장 하실 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협의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거나 협의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면 NSC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외교장관이 NSC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성범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 파병 논쟁이 붙었을 때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파병에 반대했다, 그다음에 윤영관 당시 외교부장관은 대외관계의 안정적 기조 유지를 위해서 파병해야 된다는 논쟁이 붙었다, 엄청 강하게 싸웠다는 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담당할 실무 책임자입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래서 이라크 파병하는 데 찬성했고 성사시켰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이라크 추가 파병을 몇 명을 할 것이냐……

○위원장 신성범 몇 명, 규모를 놓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그 규모를 놓고 논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지금 한나라당 쪽에 있는 분들은 대규모 파병을 해라라고 말씀하셨……

○위원장 신성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되면 그 라인 사이의 긴장 관계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 외교부장관이 아직 임명 안 됐습니다만 외교 안보 라인의 인식차는 계속…… 이채명 대통령 입장에서 양손에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 긴장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국정원장은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정책을 말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성범 좋습니다.

또 하나, 2018년도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당시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

장이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 이야기를 바로 듣고 트럼프를 만나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노딜이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저는 유심히 봤던 게 마이크 폼페이오가 올라갔을 때 김정은이 했던 말, ‘나도 자식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핵을 지고 살게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했던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미국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던데 이 문제,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좀 더 이어 가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2국가 체제니까, 적대적인, 한국의 통일부나 외교부하고 이야기하겠다는 나을 텐데 국정원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일보건 외교부건 하는 그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에게 맡겨진 특수한 임무로서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들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이런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 안에도 북한 접촉 창구가 있었는데, 전담 조직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비공개 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사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려 있겠습니다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례보고를 하실 걸 요청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직까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대북 동향과 국제 정세까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국정원 업무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리고 제가 요즘 언론에 보니까 MI6, 영국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여성이 된 데 대해서 관심이 높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제가 국정원 가서 보니까 실국장들, 다시 말하면 간부들이 수십 명이 나왔는데 여성분은 꼭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분석이, 오히려 분석과 판단은 여성분들이 잘한다 하고 또 공채로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여직원들이 아래쪽으로 2급 3급으로 가면 훨씬 많아집니다. 그건 아마 국정원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난 것과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아주 상위직들도 많이 배출될 거라고 보고……

○**박지원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라 버렸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또 특별히 여성이라고 저희들이 우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내가 원장일 때 차장, 국장 다 시켰는데 윤석열이 다 잘라 버렸어요.

○위원장 신성범 전 원장님께서 왜 응답하십니까?

(웃음소리)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군 포로가 두 명 잡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안 나가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젊은 20대 청년들이 남은 젊음을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측하고 접촉을 해 보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저도 물을 것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여야 간사 간에, 보충질의를 그냥 생략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낫겠지요, 이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를 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6층에 있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공개회의 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정보위원회 회의장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공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책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신성범 이제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후보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권영세 김병기 김영진 박선원 박지원 부승찬 송언석 신성범 유영하 윤건영
이기현 이성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입법심의관 김광선

○출석 공직후보자

이종석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권성동	송언석	국민의힘	2025. 6. 17.
박찬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2025. 6. 18.

○의안 회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0)

6월 16일 회부됨